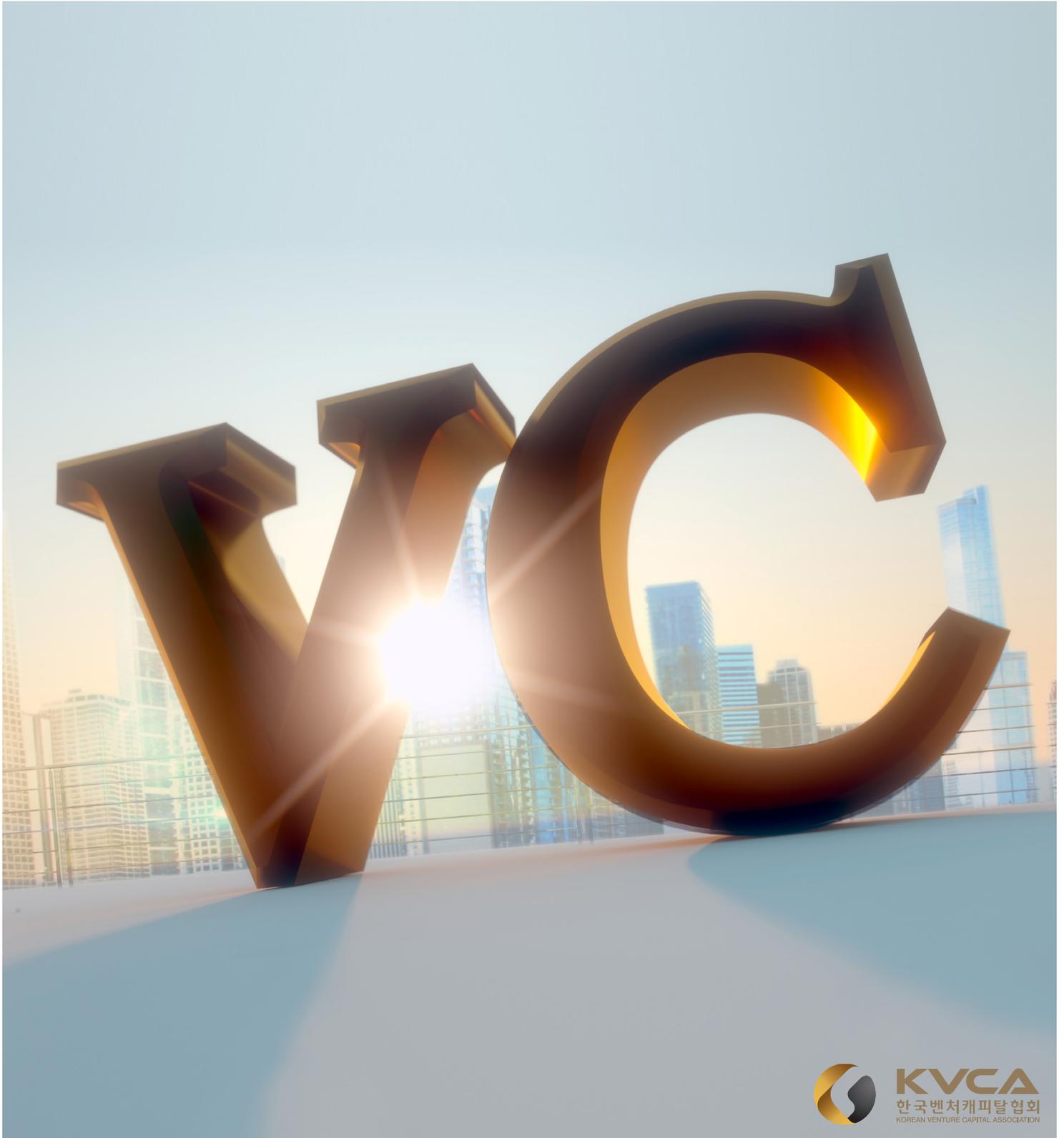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VENTURE CAPITAL NEWSLETTER 101호 / 2016년 11월



목 차



05

정기구독 신청문의, 기고 보내주실곳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층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TEL | 02-2156-2103

| FAX | 02-2156-2110

| E-mail | newsletter@kvca.or.kr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Venture Capital Newsletter 101호 / 2016년 11월

| 발행일 | 2016년 11월 10일

| 발행인 | 이용성

| 편집인 | 이의준

| 발행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 빌딩 3층

(TEL: 02-2156-2100)



07



08



10

뉴스&리뷰

KVCA 소식

- 제3차 이사회
- 2016년 혁신형 단체 교류 워크숍
- LP교류회
- 서울시 바이오 관련단체 MOU
- 대학기술기반 창업기업 투자유치 지원기관 MOU
- 사무국 워크숍

연수원 소식

- 2016년 제2차 전문인력 전문성 및 직업윤리 강화교육
- 제21기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 과정

투자협력·M&A

- CEO 조찬 세미나
- 투자연과제 개편 관련 간담회
- VC Meeting Day
- 한중 벤처투자 교류회
- M&A 지원센터 개소식
- M&A 자문기관 워크숍
- 충청지역, 전북지역 벤처투자로드쇼
- 벤처투자 사랑방
- 2016 환경산업 투자콘퍼런스
- 벤처기업 확인 동향

협회장 동정

- 중소기업 창조경제혁신위원회 참석
- KDB 스타트업 프로그램 4기 데모데이 참석

회원사 소식

이슈

최근 벤처캐피탈 바이오/의료 산업 투자 동향
VC관련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현황
벤처캐피탈 법률 Q&A

시장동향

9월 벤처투자 시장동향
(VC포커스) 2016년 1~3분기 벤처캐피탈 실적분석
주요 LP 출자계획 및 운용사 선정결과

01

뉴스&리뷰 NEWS & REVIEW

KVCA 소식

- 제3차 이사회
- 2016년 혁신형 단체 교류 워크숍
- LP교류회
- 서울시 바이오 관련단체 MOU 체결
- 대학기술기반 창업기업 투자유치 지원기관 MOU 체결
- 사무국 워크숍

연수원 소식

- 2016년 제2차 전문인력 전문성 및 직업윤리 강화교육
- 제21기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 과정

투자협력·M&A

- CEO 조찬 세미나
- 투자연계과제 개편 관련 간담회
- VC Meeting Day
- 한중 벤처투자 교류회
- M&A 지원센터 개소식
- M&A 자문기관 워크숍
- 벤처투자 로드쇼
- 벤처투자 사랑방
- 2016 환경산업 투자콘퍼런스
- 벤처기업 확인 동향

협회장 동정

- 중소기업 창조경제혁신위원회 참석
- KDB 스타트업 프로그램 4기 데모데이 참석

회원사 소식



제3차 이사회

본회는 10월 5일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조찬으로 진행된 이번 이사회에는 20개사가 참여하였다. 벤처투자 시장 동향, 본회 사업추진 실적과 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하였고, 사업준비금의 사용과 특별회원 가입 승인(우리종합금융)을 의결하였다. 또한 업계의 효율적인 인력관리 방안이 토의안건으로 진행되었다.



2016년 혁신형 단체 교류 워크숍

매년 혁신단체 관련 유관기관 간 유대강화 및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회, 벤처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가 공동으로 ‘혁신단체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10월 19일 용인에서 개최되어 전체 40여명의 벤처 유관단체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에서는 이용성 회장을 포함하여 총 8명이 참석 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여성IT기업인협회가 호스트기관으로 전체적인 진행을 담당하였다. 참가자 전원이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이후 네트워킹을 통해 교류가 이루어졌다.

참가자

NO.	회사명	성명	회사직위
1	원익투자파트너스	이용성	회장
2	케이넷투자파트너스	김대영	대표이사
3	코오롱인베스트먼트	안상준	상무
4	아이비케이캐피탈	문주철	부사장
5	마그나인베스트먼트	송정순	부사장
6	센트럴투자파트너스	이수희	대표이사
7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이의준	상근부회장
8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김종술	이사



LP교류회

10월 26일 본회 회의실에서 LP교류회가 개최되었다. 올해 2번째로 개최되는 LP교류회에는 한국벤처투자, 산업은행, 농협,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한국성장금융 등 총 9개기관 12명이 참석하였으며 최근 업계 이슈가 되고 있는 인력방안에 대해 LP별로 상이한 규정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이후 인주형 변호사가 미국의 인력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국내도입 방안을 논의하였다.



서울시 바이오 관련단체 MOU 체결

본회를 포함한 11개 단체(본회, 서울특별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연구개발조합,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10월 21일 서울의 바이오 의료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번 행사에는 본회 김형달 수석부회장이 참석하였고 이후 협약사항 실천을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학기술기반 창업기업 투자유치 지원기관 MOU 체결

본회는 지난 10월 21일 대학 기술기반 창업기업 투자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참여기관은 본회, BRIDGE사업단협의회,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기술보증기금 등 총 4개 기관으로 대학 창의적 자산을 사업화로 연계한 기업에게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학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촉진하고자 협약에 참여하였다.

사무국 워크숍

사무국은 10월 7일 임직원 추계 워크숍을 개최했다. 오전에는 교양 특강이 있었고 이어 남이섬으로 이동하여 미니 체육대회와 산책을 통해 휴식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2016년 제2차 전문인력 전문성 및 직업윤리 강화 교육

본 교육은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벤처캐피탈 임직원들의 최근 투자업계 현황 파악과 직업윤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이번 과정에서는 9월 28일 첫 시행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올해 마지막 차수인 제3차 전문인력 전문성 및 직업윤리 강화교육은 오는 11월 23일에 개최 예정이다.

일자 : 2016년 10월 13일 (1일 출석)
장소 : 역삼동 디캠프 6층 다목적홀



내용	강사
벤처캐피탈 투자동향 및 ISSUE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 김형수
벤처캐피탈 최근 입법동향 및 해외 벤처투자 법령 비교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 이종건
청탁금지법 및 사례	단국대학교 교수 김래영
VC 준법감시제도 및 사례	한국투자파트너스 변호사/팀장 이상화

2016년 제21기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 과정

전문가 과정은 벤처캐피탈 관련 이론의 전반적인 내용을 익히고, 숙박과 팀별 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과정이다.

또한 투자심사보고서 작성 실무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 벤처캐피탈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2015년부터 매년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제22기 교육은 2017년 6월 개최할 예정이다.



[공통과정]

일자 : 2016년 10월 17일 ~ 10월 22일
(5박 6일 합숙)
장소 : 여주 썬밸리호텔

내용	강사
공통과정	
한국의 벤처캐피탈산업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 김형수
벤처캐피탈 투자방법 및 단계별 특징	엘비인베스트먼트 전무 구중희
(특강 I) VC투자 핫 이슈: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ICT서비스/유통	엘로모바일 대표 이상혁
벤처캐피탈과 법률 - 창지법, 벤특법, 자동법 등	변호사 이종경
Venture Capital(Fund) 및 PEF Tax 비교	삼화회계법인 부대표/회계사 박종대
투자심사보고서 작성 및 Due-Diligence 사례	프리미어파트너스 상무 김성은
중국 VC/PEF시장 현황 및 투자 Case Study	엘비인베스트먼트 VC부문 대표 박기호
IPO와 회수전략에 대한 이해 - 코넥스, SPAC, 프리보드 등	에스비이파트너스 상무 김희천
Valuation & Pricing	서울대학교 교수 이영민
벤처기업 투자와 Value up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대표 윤건수
Private Equity 및 투자사례	스틱인베스트먼트 부사장 정한설
벤처기업 M&A 절차 및 Case Study	티에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웅
SCREENING & ANALYZING BUSINESS PLANS	에트리홀딩스 대표 조병식
(특강 II) VC투자 핫 이슈: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바이오(신약 연구개발 트렌드)	브릿지바이오 대표 이정규

[필수과정]

일자: 10월 26일 ~ 10월 28일 (3일 출석)
 장소: 강남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

내 용	강 사
필수과정	
스타트업 기업 IR 및 Q&A (1) ICT서비스/유통 (2) 제조/전기·전자 (3) 바이오/의료	
심사보고서 작성 실무 및 Case Study (1) ICT서비스/유통 (2) 제조/전기·전자 (3) 바이오/의료	인터베스트 전무 임형규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전무 하태훈 케이비인베스트먼트 팀장 권인호
비상장기업 재무(부실예측) 분석(업종별 Case Study)	신정회계법인 이사/회계사 박상학
투자계약서 작성 실무 및 Case Study (1) 신주(RCPS) 인수 투자계약서 (Refixing, Tag-along, 이해관계인 등) (2) CB, BW 투자계약서	법무법인 이후 대표 변호사 이종건
Fundraising 제안서	케이비인베스트먼트 이사 한철호
심사보고서 팀별 발표(10팀), 질의응답, 심사위원단 팀별 총평, 평가 우수팀 시상	심사위원장 : 하태훈 전무(디에스씨) 심사 위원 : 권인호 팀장(케이비) 이종건 변호사(이후) 손민호 이사(수림) 김동훈 회계사(신정)

[11월 교육 안내]

교 육 명 : 벤처캐피탈 스캇 아카데미 3차 - VR산업 분석
 운영 형태 : 1일 출석
 일 자 : 11월 10일(목)
 대 상 자 : 창투사, LLC, 신기술금융사, 기타 일반 등
 과정 개요 : VC 임직원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연중 수시 진행하는 키포인트 단기 집체교육
 신청 기한 : 11월 2일까지
 신청 방법 : 본회 홈페이지(www.kvca.or.kr) 온라인 신청

교 육 명 : 비상장주식 분석과정
 운영 형태 : 2박 3일 숙박
 일 자 : 11월 16일(수)~11월 18일(금)
 대 상 자 : 벤처캐피탈 및 금융업계 종사자, 유관기관 등
 과정 개요 : 비상장주식 분석 및 평가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신청 기한 : 11월 4일까지
 신청 방법 : 본회 홈페이지(www.kvca.or.kr) 온라인 신청

교 육 명 : 제3차 전문인력 전문성 및 직업윤리 강화교육
 운영 형태 : 1일 출석
 일 자 : 11월 23일(수)
 대 상 자 :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VC 임직원 중 교육 만기일이 도래한 자
 과정 개요 : VC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신청 기한 : 11월 16일까지
 신청 방법 : 본회 홈페이지(www.kvca.or.kr) 온라인 신청

행 사 명 : 투자전문인력 양성과정(벤처투자론) - VC멘토링데이
 주 최 : 중소기업청
 주 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일 자 : 11월 25일(카이스트) / 11월 26일(고려대)
 대 상 자 : 벤처투자론 강의 수강생 및 해당 대학(원) 재학생 중 벤처캐피탈에 관심 있는 학생
 행사 개요 : 현직 벤처캐피탈리스트를 초빙하여 업계 이슈와 실제 근무환경 및 채용 관련 정보 습득,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 마련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CEO 조찬 세미나

본회는 지난 10월 6일 웨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2008년 이후 선정된 투자연계과제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한정화 교수(前중기청장)를 초청하여 ‘조직의 성장통과 창업 CEO 딜레마’를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개최하였다. CEO 조찬세미나는 인문·경영·과학 분야 명사초청 네트워킹 포럼으로, 매월 초 투자연계과제 선정기업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다음 조찬세미나는 11월 9일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부하직원들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연사 : 박태현 대표, 팀과 리더이야기)’을 주제로 개최된다.

투자연계과제 개편 관련 간담회

2008년부터 본회가 운영하고 있는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의 개편방향에 대한 투자기관 및 중소벤처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가 지난 19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투자기관 및 중소벤처기업 6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간담회에서는 투자연계과제 성과분석 결과와 지난달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된 개편안에 대한 투자심사역 설문조사의 결과를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회는 간담회 의견을 반영하여 투자연계과제 개편 진행상황에 맞춰 보다 나은 과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10월 VC Meeting Day

지난 10월 26일 본회 상담실에서는 2016년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선정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VC Meeting Day가 개최되었다. 투자심사역과 선정기업 투자유치담당자가 1:1로 만나 투자유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11개사의 기업과 심사역이 참석하였다. 본회는 선정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확대를 위해 11월 부터는 월 2회로 행사횟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중 벤처 투자교류회

투자연계과제 선정기업의 해외진출 및 후속투자유치를 지원하고자 중국 광저우 지역 투자기관을 초청하여 지난 10월 26일 웨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벤처 투자 교류회를 개최하였다. 최종 선정된 12개사는 6개 중국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IR을 진행하였다. 한편 오전에는 중국 투자유치 현황 및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좌담회와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본회는 선정기업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후속 투자유치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 성장통(Growing Pain)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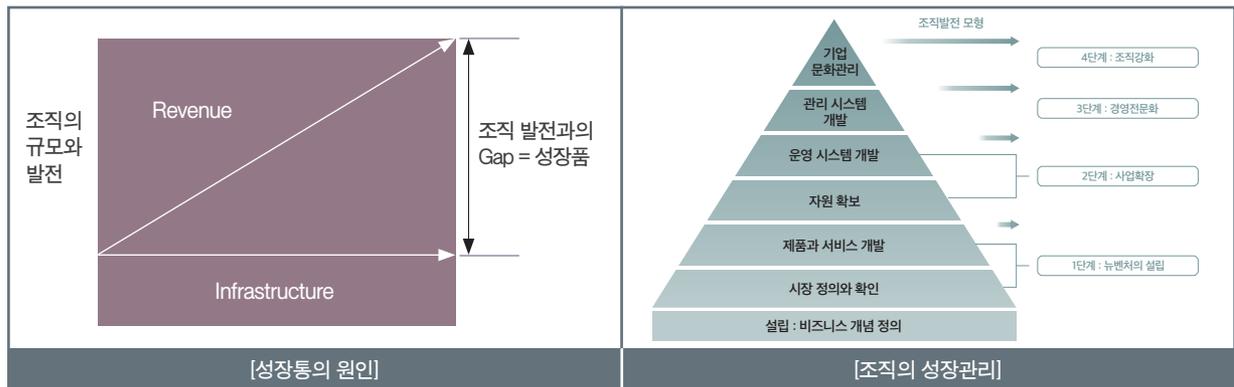
정의 - 기업이 성장과정에서 조직의 성장속도에 비해 관리역량(Planning, Organizing, Leading, Controlling)의 부족으로 기업이 방향감을 상실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것으로 기업의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이 위협받게 되는 현상

※ 조직의 성장은 단계별로 관리 필요. 1단계 설립단계에서는 시장을 정의하고, 제품/서비스를 개발, 2단계에서는 자원을 확보하고 운영시스템을 개발, 3단계에서는 관리시스템을 개발, 마지막 4단계에서는 기업 문화관리까지 역량을 넓혀야함. 대부분의 기업이 2, 3단계를 넘어가면서 성장통 발생.

※ (사례) Dell Computer, Humax 등

현상 - △영킴현상¹⁾ △지침현상²⁾ △조직의 개인화³⁾ △리더십 한계봉착⁴⁾

- 1) 성장속도/조직규모와 관리역량의 부조화, 적합한 관리시스템 구축 부재시 관리통제의 혼란
- 2) 변화를 시도했으나 원점회귀 현상(요요현상), 구성원의 조직 피로감 증폭(조직피로감)
- 3) 소수의 믿을 만한 사람에 의존한 조직운영, 충성심과 능력을 함께 갖춘 직원의 부족
- 4) 의사소통 부진, 신뢰약화와 공동체 균열, 변화와 혁신의 걸림돌



■ 성장통과 창업CEO 딜레마

딜레마의 종류 - △전문성의 함정¹⁾ △자신감의 함정²⁾ △통제의 함정³⁾

- 1) 기술창업, 전문가형 등 전문성을 보유한 CEO의 디테일한 관리통제 욕구는 조직규모의 증가에 따라 역기능을 초래. 중간관리자, 현장책임자의 권한과 자율성 침해로 업무 스트레스 증가
- 2) 초기의 빠른 성장 또는 고성장 단계에서 자만심, 자기확신으로 성공의 함정(success trap)에 빠짐
- 3) 창업가의 회사와 자신에 대한 강한 통제 성향이 권위주의적 리더십 스타일로 연결

해결방안 - △경영시스템 구축¹⁾ △내부 경영진 육성²⁾ △외부 영입³⁾ △본인 자신의 경영역량 강화 및 변신⁴⁾

- 1) 적합한 수준의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동시에 직원들의 가치관 공유와 행동방식의 변화를 통해 관료화 경향 방지를 위한 '관리적 통제와 문화적 통제의 균형' 달성
- 2) 전문성과 함께 전체를 보는 경영자 마인드를 가진 2인자를 육성하거나, 최고경영층(TMT) 구성
- 3) 신중한 search와 동시에 commitment 유도가 가능한 중장기적인 보상체계 마련. CEO급 영입의 경우 창업기업가와 R&R 명확히 분리
- 4)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 이론, 장단점 방법론 등에 대한 학습이 필요

■ 지속성장의 조건

- 조직성장에 따른 CEO의 R&D 재조정
- 성장단계별 적합한 경영시스템(IT) 구축
- 열린 마음과 본원적 변화(Deep Change)
- 조직변신의 방향에 대한 CEO의 심층적 이해 및 확신
- 중간관리자의 양성과 우수인력 확보
- 균형잡힌 리더십팀 구축
- 필요시 전문경영자의 신중한 영입

M&A 활성화 지원사업

M&A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본회는 지난 10월 5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벤처기업 M&A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10월 20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 M&A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지원센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5조13항에 따라 지정되며, 중소기업의 M&A 계획수립, M&A를 위한 기업정보의 수집·제공 및 컨설팅, M&A에 필요한 자금의 연계, M&A 전문가 양성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지원센터는 본회, IBK기업은행, (사)한국M&A협회 등 총 3개 기관이다. 이날 행사는 이용성 회장을 비롯한 본회 임직원이 참석하여 업무보고, 현판식, 사진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본회는 이날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원센터 업무를 시작함과 동시에 M&A 활성화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써 M&A 지원센터 간 협업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으로 회원사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기대된다.

M&A 자문기관 워크숍 개최



본회는 지난 10월 21일 2016년 M&A 활성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M&A 자문기관 워크숍을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였다. M&A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 30여개사가 참가

한 이번 워크숍은 M&A 활성화지원사업 향후 추진계획 안내, M&A 자문기관 최신 보유물건 발표, M&A 특강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자문기관의 건의 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별도로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M&A 기업진단비용 및 상담·자문비용 지원신청 안내, 최신 M&A 보유물건 발표 등 M&A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과학기술대의 신진오 교수가 ‘M&A, 그 발상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여 자문기관의 높은 관심 및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행사종료 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자문기관들은 행사에 대한 만족을 표시하며, M&A 활성화 및 자문기관 지원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진 가능한 항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에 반영하여 M&A 지원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향후 벤처캐피탈의 자문기관 신규등록 및 자문기관 성과평가 등을 통해 양질의 자문기관을 육성할 수 있도록 힘을 예정이다.

벤처투자 로드쇼



본회는 지난 10월 28일, 11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충북, 전북 지역에서 벤처투자로드쇼를 개최하였다. 충북지역은 벤처캐피탈 11개사(14명), 엔젤투자자 3명, 기업 30개사가 참여하였으며, 전북지역은 벤처캐피탈 5개사(8명), 엔젤투자자 3명, 기업 16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한편 11월 17일에는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벤처투자 로드쇼를 개최할 예정이다.

(VC참가문의 : 투자협력팀 김재익 연구원 / 02-2156-2134)



10월 벤처투자 사랑방

벤처투자 사랑방은 중소·벤처기업과 투자기관 심사역 간의 1:1 투자 상담을 통해 참여기업의 투자유치 가능성을 진단하고, 향후 방향성 등을 컨설팅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10월 25일 본회에서 개최된 벤처투자 사랑방에는 ICT서비스, 기계·장비, 화학·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 벤처기업 15개사와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네오플렉스,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등 국내·외 벤처캐피탈 7개사가 참여하여 상담이 진행됐다.

다음 행사는 오는 11월 22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참가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벤처투자 사랑방 홈페이지 (<http://cafe.kvca.or.kr>)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6 환경산업 투자 콘퍼런스

본회는 지난 10월 18일 코엑스에서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2016 환경산업 투자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날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스틱인베스트먼트,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등 환경산업에 관심을 갖는 투자기관 20여개사와 투자 유망 환경기업 30여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가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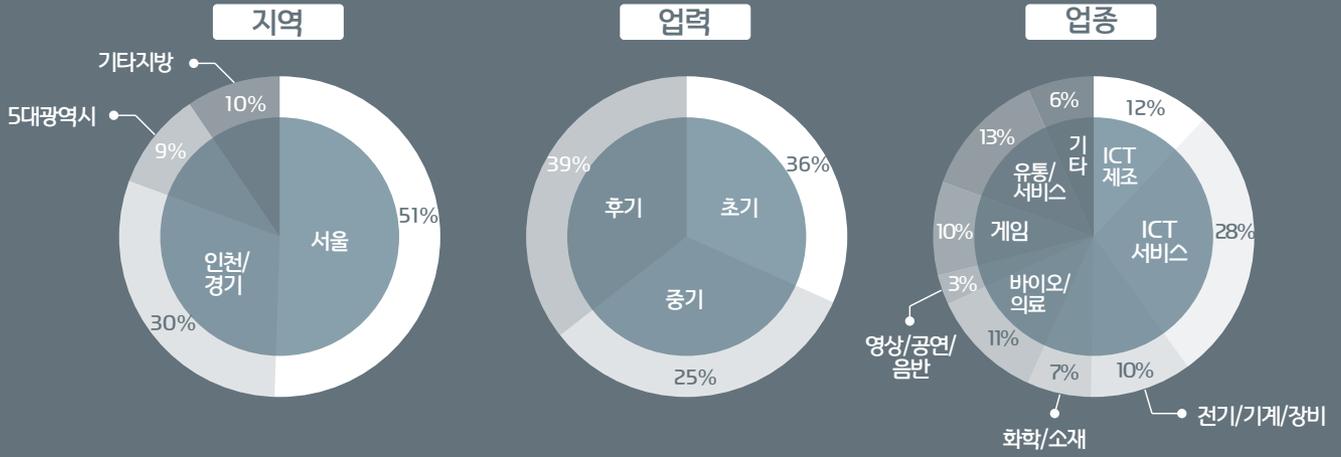
특히 환경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투자토크콘서트가 진행되었는데 환경기업들의 참여가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환경분야 투자를 위한 벤처캐피탈과 기업의 열띤 토론이 계속되었다. 또한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와 마젤란 기술투자가 각각 발굴하여 투자유치에 성공한 2개사(클린솔루션, 아코플레닝)와 각각 투자유치 체결식이 진행되어 많은 투자기관의 관심을 끌었다.

본회가 운영하는 환경부의 투자유치 지원사업을 통해 점차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기관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본회는 앞으로도 환경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들의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벤처기업확인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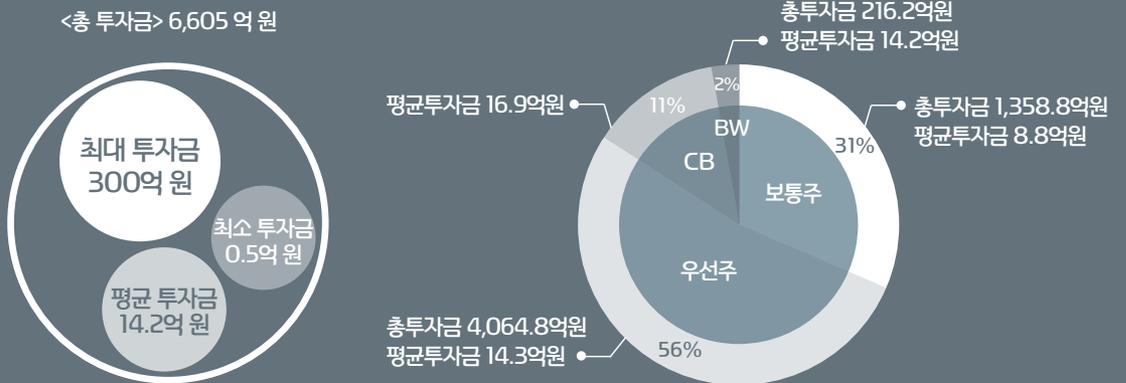
본회는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벤처투자기업) 인증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기업은 VC를 비롯한 투자기관에서 5천만원 이상, 자본금대비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받을시 인증이 가능하다. 2016년도 3분기 말 기준 본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은 464개사이다. 다음은 올해 확인받은 벤처투자기업에 대한 현황이다.

기업 일반정보



[2015]		업종	[2016.9]	
기타	6.3%		기타	6.5%
유통/서비스	13.1%		유통/서비스	12.9%
게임	9.4%		게임	9.7%
영상/공연	2.4%		영상/공연	2.8%
바이오/의료	7.0%		바이오/의료	11.4%
화학/소재	8.0%		화학/소재	6.5%
전기/기계/장비	11.9%		전기/기계/장비	10.3%
ICT서비스	26.3%		ICT서비스	28.0%
ICT제조	15.5%		ICT제조	11.9%

투자 내용별



투자 자원별 [단위:억원]



*기타: 전문엔젤, 신기술사, 개인투자조합, PEF, 기업은행 등

투자 회사별 [단위:억원]



*기타: 전문엔젤, 개인투자조합, PEF, 기업은행, 외국투자회사 등

중소기업 창조경제혁신위원회 참석



지난 25일 중소기업 창조경제혁신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김광두 위원장을 비롯한 40여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본회 이용성 회장도 함께 하였다. 회의에서는 박진우 스마트공장추진단장(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이 '제조업의 스마트화, 선진국의 동향과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윤종욱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장이 정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KDB 스타트업 프로그램 4기 데모데이 참석



본회 이용성 회장은 KDB나눔재단이 주최하고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하는 KDB 스타트업 프로그램 데모데이에 내빈으로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 행사는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초기 창업자를 발굴, 육성하여 창업역량 강화 및 투자유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최종 선발된 20개팀에는 사업화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회원사 소식

신규가입

회사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비고
레드배지퍼시픽	김병국, Kim Jonathan Choon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432 14층 (역삼동, IS타워)	02-3452-5980	02-3452-3646	
우리종합금융	정기화	서울시 중구 명동길 42	02-2000-6733	070-4774-9988	특별회원

대표이사 변경

회사명	변경전	변경후
유안타인베스트먼트	황상운	양기석
산수벤처스	최형철	박중홍, 김준영
동훈창업투자	박용인, 김남연(공동대표)	진성태, 김남연(공동대표)

사무실 이전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블루그린인베스트먼트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길 9 수암빌딩 5층	02-577-6999	02-577-6998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본격적인 상장 절차를 준비중인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는 한국거래소에 9월 말 상장 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주관사는 키움증권이다. 윤건수 대표는 "연내 상장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진행 상황을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젤란기술투자

150억원 규모의 'MTI IP 상용화펀드' 결성을 마무리했다. 대표펀드매니저는 약 15년간 벤처투자업계에 몸담으며 IP 투자에 대한 전문성을 다져온 장철진 상무가 맡았다.

메가인베스트먼트

최근 AJ캐피탈파트너스 출신의 서은광 심사역을 영입했다. 서 심사역은 PE 본부에서 다수의 바이아웃(Buy-out) 딜 경험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에는 바이오 전문 심사역인 신민식 심사역이 새롭게 투자 본부에 합류하는 등 젊은 심사역을 잇따라 영입하며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산수벤처스

지난 7일 중소기업청에 대주주 변경 등록을 신청했다. 새로운 최대주주 에이비엔인베스트먼트는 지난 6월 설립된 법인으로 산수벤처스는 40억원의 제3차 배정 유상증자에 나서 자본금을 10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린 후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틱인베스트먼트

'스틱팬아시아테크놀로지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엠지메드 주식 10만 3700여주(지분율 4.9%)를 최근 모두 매각했다. 회수한 금액은 37억여원이다.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2014 SV-성장사다리 Gap Coverage 펀드'를 통해 코넥스 상장기업 케이엠제약에 투자했다. 인수 규모는 총 30억원으로 코스닥 이전상장 기대와 함께 안정적 기업가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구주 인수를 통한 세컨더리 투자에 나섰다.

이엔인베스트먼트-유비쿼스인베스트

이번 KIF M&A-세컨더리펀드 출자사업에 총 300억원 규모의 투자조합 결성을 제안했다. 두 회사는 서로에 대한 투자 철학도 잘 알고 있어 공동운용사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인터베스트

디지털 엑스레이 디텍터 전문기업 디알텍 투자로 최소 5배 이상의 수익을 달성할 전망이다. 디알텍의 합병 상장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일부 원금 회수는 가능하겠지만 중장기 투자를 이어가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지엔틱벤처투자

올해 3월부터 바이오 전문 심사역을 찾는데 몰두해오다가 최근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 출신 여지우 심사역을 영입했다. 여 심사역은 바이오 투자 전문가로 과거 동아제약 연구소에서 신약 개발 및 연구 기획 등을 담당한 업력을 보유하고 있다.

캐피탈원

지난 3월 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모태펀드의 중진계정 운용사로 선정된 이후 145억원 규모의 '캐피탈원 여성창조기업 투자조합' 결성을 완료했다. 매칭 LP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케이큐브벤처스

일정 공유 서비스 주빌리 타임트리 개발사 주빌리웍스에 총 4억 5,000만원을 투자했다. 글로벌 소셜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는 주빌리 타임트리의 저력을 높게 평가하여 투자를 단행하였으며 주빌리웍스가 글로벌 소셜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이티비네트웍

3년 전 투자했던 썸에이지에 대한 회수에 들어갔다. 스팩 합병에 대한 영향으로 투자 원금 대비 처분가격이 평균 매입가격보다 크게 낮아지며 최대 8배 가량의 수익 달성이 예고된다.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바이오벤처 메디오젠에 20억원의 투자를 단행했다. 메디오젠은 생명공학 기술을 토대로 생균제(Probiotic Products)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국뿐 아니라 중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 위치한 총 150여 개의 회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상생투자조합'을 100억원 규모로 결성하였는데 CJ오쇼핑이 핵심 출자자(LP)로 참여하고 서장원 대표가 직접 대표펀드매니저를 맡았다.

한국투자파트너스

실리콘밸리 인근 샌프란시스코 팔로알토에 미국 지사 설립을 마무리했다. 2010년 중국 법인 설립 이후 두 번째로 해외 지역에 상설지사를 설립한 것이다. 이상우 이사가 현지 운용을 담당하며 추가 채용을 통해 인력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현대기술투자

옵토팩의 코스닥 이전상장 이후 회수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11만 7,000주를 장내에서 약 8,221원에 매도했으며, 이후 10월에는 2만 9,613주를 주당 8,444원에 팔았다. 이를 통해 올해 회수한 금액은 약 12억 1,200만원에 이른다.

02

이슈 ISSUE

최근 벤처캐피탈의 바이오/의료 산업 투자 동향
VC관련 법령 및 제도개정 현황
벤처캐피탈 법률 Q&A



최근 벤처캐피탈의 바이오/의료 산업 투자 동향

최근 벤처캐피탈 업계의 화두는 단연 바이오와 O2O 산업이다. 오랫동안 벤처업계에서 황제로 군림했던 ICT 제조산업이 최근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과의 경쟁심화에 따른 전방산업의 고전으로 예전과 같은 고속성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그 대안으로 바이오, 제약산업과 O2O로 대변되는 ICT 서비스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바이오산업의 경우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마다 신성장동력 분야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 및 관련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삼성을 비롯한 CJ, SK, LG 등 대기업도 투자를 늘리면서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해 내츨렐엔도텍과 관련한 약재에도 불구하고 한미약품의 8조원대 기술수출, 셀트리온의 램시마 미국 출시 소식 이후 국내 바이오산업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확신과 R&D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바이오 벤처기업과 제약사는 코스닥 상장 후에도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주가흐름을 보이며 코스닥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2015년도 55개 상장 제약사(유가증권 및 코스닥)의 영업실적(개별 재무제표 기준)을 살펴본 결과 매출액은 13.8%, 영업이익은 35.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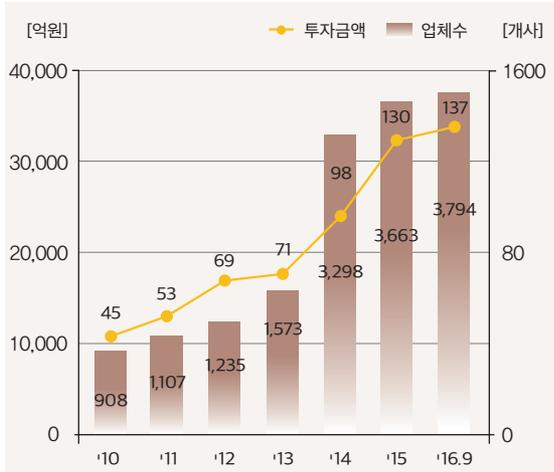
액 7.6%, 영업이익 4.0% 증가와 비교하면 상당히 개선된 수준이다.

벤처캐피탈의 바이오, 제약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일부 언론에서는 과거 태양광의 사례를 들며 최근 바이오벤처에 대한 투자 과열을 우려하고 있을 정도이며, 시장에서는 더 이상 투자할 바이오 기업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금액은 2014년 3,000억원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3,663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금년에는 투자금액이 더욱 증가하여 9월까지 137개사에 3,800억원이 투자되어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불과 4~5년 전만해도 1,000억원을 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놀라운 상승세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거 ICT와 일반제조, 문화콘텐츠에 밀려 5%내외에 불과했던 투자비중도 금년 9월까지 22.4%로 전 산업 중 가장 높았으며, 지난해에도 ICT서비스에 이어 두 번째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 바야흐로 바이오산업은 벤처캐피탈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산업이 되었다. 바이오산업 중에서도 의료용물질/의약품의 투자증가가 눈에 띈다. 과거 의료기기와 의료용물질의 비중은 3:7을 넘지 않았으나, 2013년과 2014년에는 2:8로 벌어졌다.



이기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장

바이오/의료 산업 신규투자



다른 산업 등 일반적인 벤처캐피탈의 투자와 바이오투자의 다른 점을 꼽자면, 바이오벤처 투자는 기업당 투자금액이 크고, 후기기업에 보통주를 활용하여 투자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바이오의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은 28.2억원으로 전체평균인 19.8억원에 비해 10억원가량이 많다. 업력별로는 후기기업(창업일로부터 7년 초과)에 대한 투자가 58.3%로 전체보다 15%p 이상 높으며, 초기기업(창업일로부터 3년 이하)의 비중은 11.7%에 불과하다. 2014년 이전에는 후기기업에 대한 비중이 더욱 높아서 70%에 육박하였으나, 그나마 지난해에는 그 비중이 다소 줄었다. 투자유형도 지난해 보통주 방식이 32.8%로 전체투자의 28.3%에 비해 높았으며, 역시 2014년 이전에는 보통주 비중은 더욱 높았다.

이러한 특징은 바이오기업의 성장과정과 연관이 깊다. 바이

오산업은 기술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나, 일단 개발이 성공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그 파급효과나 지속기간 또한 엄청난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산업이다. 국내 벤처캐피탈의 투자문화나 환경에서 바이오기업의 초기 기술개발 단계에 벤처캐피탈이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오랜기간 ICT 중심의 투자트렌드로 바이오 관련 전문지식과 식견을 보유한 벤처캐피탈리스트가 부족한 점도 초기단계의 투자를 망설이는 요인이 아닐까 싶다. 다행인 점은 최근 의사, 약사, 연구원 등 의약계 종사자가 본회의 교육과정 등을 거쳐 벤처캐피탈 업계로 상당수 유입되고 있어 향후 기술평가를 통한 초기단계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조합의 대형화 및 바이오 전문투자조합의 결성, 조합 존속기간이 길어진 점도 바이오산업 투자 증가의 중요한 요인이다. 조합규모가 커짐에 따라 개별 기업당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해졌고, 조합의 존속기간이 8년 이상으로 길어지면서 벤처캐피탈은 투자기업에 대해 더 많은 인내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바이오 기업의 호황에는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이 큰 역할을 하였다. 2014년 이후 32개의 특례상장 기업 중 28개사가 바이오 관련 기업이었다. 상장여부에 민감한 벤처캐피탈로써는 상장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는 바이오 기업에 눈길이 갈 수 밖에 없다.

벤처캐피탈별로는 최근 5년동안 89개사가 바이오투자에 참여했으며, 개별사로는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인터베스트 등이 바이오 투자를 이끌어 상위 10개사가 전체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0%였다. 피투자회사는 레고캠바이오사이언스가 5년동안 348억원으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올리패스 300억원, 크리스탈지노믹스 280억원, 휴젤 278억원 등이 많은 투자를 받은 회사이다. 단, 투자금액에는 구주거래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모든 투자금이 회사로 유입된 것은 아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투자기관도 높은 수익을 실현했다. 2013년 에스엘인베스트먼트가 내츨엔도텍으로 18배의 수익을 올린 것은 많이 알려져있는 실적이며, 지난해에도 신규상장한 펩트론, 파마리서치프로덕트, 코아시스템 등으로 투자회사는 투자금의 4배가 넘는 수익을 거뒀다. 최근 5년동안 투자원금 기준 1억원 이상을 회수한 139개 기업 중 손실을 기록한 경우는 단 10개사에 불과할 정도로 바이오기업에 대한 성공적인 회수는 타 산업을 압도하였다.

최근 바이오 기업의 특례상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한미약품의 주가하락과 능장공시 등의 악재도 있지만 바이오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거침없이 성장하는 산업에게 성장통은 고마운 아픔이며, 이를 잘 이겨내야 더 커 나갈 수 있다. 벤처캐피탈의 장기적인 먹거리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다지며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이오산업이 벤처캐피탈의 투자와 함께 우리나라를 이끄는 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 본문의 투자실적 등 자료는 인정투자와 불인정투자를 합한 벤처캐피탈의 총 투자금액 기준임



VC관련 법령 및 제도개정 현황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2016.10.5.시행)

[모태출자 없이 결성할 수 있는 KVF 목적 및 기준 규정]

목적 - ①중소·벤처기업의 M&A

②중소·벤처기업의 기발행 주식 등의 인수
(세컨더리 펀드)

*출자금 총액의 60%를 해당하는 목적으로 투자해야 함

기준 -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모태조합 출자없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

- 가. 모태조합의 출자를 받은 조합을 한 개 이상 운영하고 있을 것
- 나.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운용인력 중 최소 1인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일 것

*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는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인력으로 구성되는 회사로 펀드의 책임 운용을 위해 운용인력의 1인 이상은 사원으로 하도록 규정

제4조의2(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법 제4조의3제1항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목적과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제2호는 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의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아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투자할 것
 - 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 나. 중소·벤처기업의 기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유한회사의 출자 등의 인수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가.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출자를 받은 조합을 한 개 이상 운영하고 있을 것
 - 나.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운용인력 중 1인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일 것



[지분 인수 규정을 조합원의 지분 인수로 개정]

- 벤처펀드의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 인수”로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유한책임조합원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조합원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조합원의 지분 인수”로 개정

제4조의3(프로젝트투자 등) 법 제4조의3제6항제4호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투자금액의 합계는 해당 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2015.11.13일부개정>

1. 「창업투자회사등의등록및관리규정」 제7조의2에서 정한 프로젝트투자
2. 다른 한국벤처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여성전문금융업법」 제44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보유한 해당 조합 출자지분의 인수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행위제한 규정 신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도 동일 사항을 고시로 위임하고 있으며,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준용

제4조의5(투자행위제한) 영 제3조의9제4항제3호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영 제3조의9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를 할 때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한국벤처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2. 영 제3조의9제3항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1호에서 정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와의 계약이나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행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4/4분기 관련규정 개정)

-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 (금융위원회, 2016.10.5.)에 공모시 수요예측 참여 기관 투자자에 창투자 포함
- 상장주관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혁신기업들을 발굴·상장시킬 수 있도록 자율성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IPO 공모제도 개편
 - 주관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새로운 수요예측 방식 허용
 - 상장주관사가 수요예측 참여 기관을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하고, 가격발견에 도움을 준 신뢰성 있는 기관 투자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규정상 근거를 명확히 기재
 - 창투사를 기관 투자자에 추가하여 수요예측 범위를 확장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

Q 내부자거래의 규제 체계는 어떻게 되는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제4편 불공정거래의 편제 하에 제1장에서 내부자 거래 등을 다루고 있음(자본시장법 제172조 내지 제175조).
2.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규제내용은, (1) 내부자가 주식을 매도 또는 매수한 후 6월 내에 다시 매수 또는 매도를 하는 방법으로 단기기간의 매매를 통해 차익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하는 제도²⁾(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제도), (2) 내부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³⁾(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금지 제도)등 2가지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음.
3. 위 (1)의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제도'는 일정한 내부자의 신분요건만 충족이 되면 실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규제를 하게 되는 반면, 위 (2)의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금지 제도'는 내부자의 신분을 갖춘 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한정하여 규제를 하게 됨.
4. 위 (1)은 정보이용의 개연성을 근거로 차익을 반환케 하여 거래를 무익하게 하는 것이고, 위 (2)는 실제로 정보를 이용한 것을 비난하는 것이므로 내부자의 범위를 달리 하게 됨. 즉, (1)은 형식적인 기준에 의하여 범위가 제한되고 (2)는 정보접근가능성이 있는 자로 넓게 규제 함.
5. 또한 규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자본시장법 제173조는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토록 하고 있고, 동법 제175조는 정보를 이용하여 매매를 한 자로 하여금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1) 제172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173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제173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제175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등

2)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직원(직무상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한다)
2. 제1호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3.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3)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 [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2013.5.28.>

1.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제133조제1항의 공개매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실시 또는 중지 에 관한 미공개정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매수를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개매수예정자"라 한다)가 공개매수공고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주식등을 보유하는 등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3., 2013.5.28.>

1. 공개매수예정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공개매수예정자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2. 공개매수예정자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3. 공개매수예정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4. 공개매수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6. 공개매수예정자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받은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량취득·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실시 또는 중지 에 관한 미공개정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가 제149조에 따른 공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주식등을 보유하는 등 주식등에 대한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 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3., 2013.5.28.>

1.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 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2.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 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3.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 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4.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 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 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6.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 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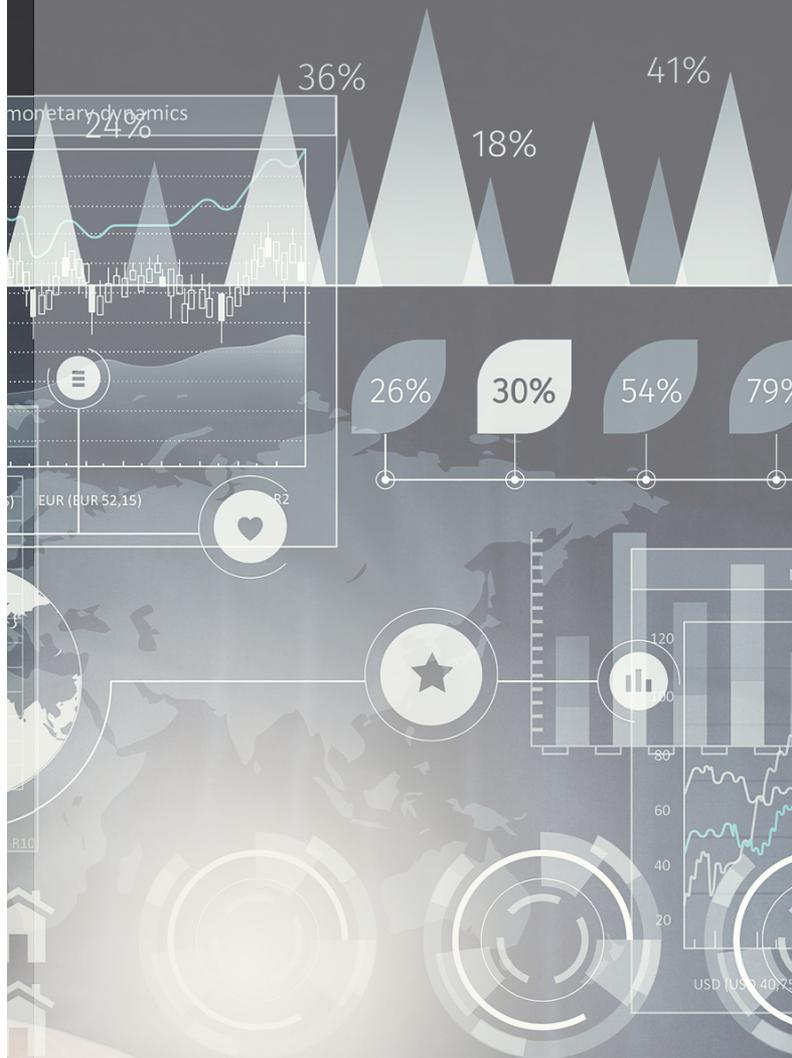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금지 대상이 되는 내부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1.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 상 위 '내부자'의 범위는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에 비추어 상당히 넓음.
2. 구체적으로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당해 법인의 대리인, 위 법인에 대하여 허가, 인가 등 감독권한을 가진 자,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이 포함되며,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수령한 자('tippee')를 포함함. 다만, 정보수령자로부터 전득한 정보의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음.
- 3 판례(대법원 2002.01.25. 선고 2000도90 판결)도 "제2차 정보수령자를 제1차 정보수령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하여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고 있음.

03

시장동향 MARKET TREND

9월 벤처투자 시장동향
(VC포커스) 2016년 1~3분기 벤처캐피탈 실적분석
주요 LP 출자계획 및 운용사 선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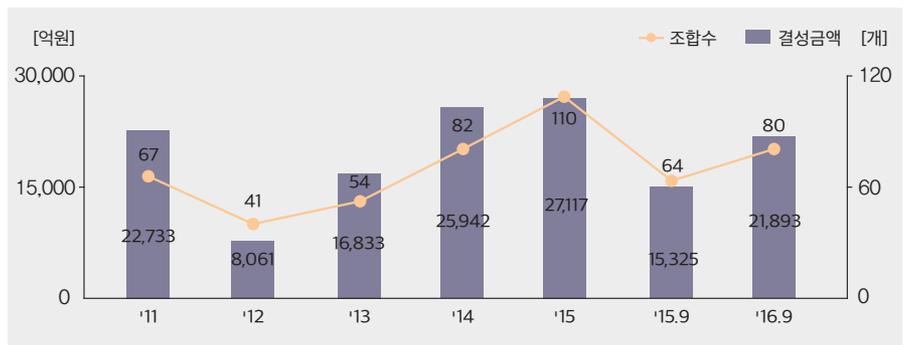


- 2016년 9월에 10개 조합(창투조합 5개, KVF 5개)이 1,919억원의 규모로 신규 결성
- 9월에는 총 175건(102개사)이 투자되었으며, 신규투자 금액은 2,016억원으로 전년 동월(1,685억원) 대비 331억원(8.5%) 증가하였고, 이중 바이오/의료 투자가 788억원으로 9월 신규투자의 39.1% 차지
- 9월 회수는 주식매각/상환을 통한 회수가 46.3%로 가장 높았으며, IPO를 통한 회수비중이 22.1% 차지

투자재원

■ 조합결성

금년 9월까지 80개 조합, 21,893억원이 결성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64개 조합, 15,325억원) 대비 신규결성 조합 수는 16개(25.0%), 결성금액은 6,568억원(42.9%) 증가한 수치이다.



■ 연도별 신규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 금년 9월까지 신규 결성된 투자조합의 출자자 비중은 모태펀드를 포함한 정책기관이 28.5%로 가장 높았으며, 금융기관 25.6%, 벤처캐피탈이 15.1%, 일반법인 14.0% 등의 순이다.

▷ 특히 벤처펀드 출자자 중 정부(모태펀드 포함), 산은/정금, 성장사다리를 제외한 민간출자자 비중이 62.1%로 전년 동기(55.7%) 대비 6.4%p 증가하였다.

[단위: %]

조합원유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9	2016.9
정책기관 (모태펀드)	16.9 (11.7)	32.8 (24.9)	32.6 (31.4)	16.6 (14.4)	31.6 (23.6)	33.9 (25.2)	28.5 (22.8)
금융기관 (산은/정금)	23.6 (17.6)	19.9 (7.4)	28.8 (16.2)	22.5 (12.3)	22.5 (4.1)	21.5 (3.2)	25.6 (8.1)
연금/공제회	21.2	10.9	8.4	20.4	4.3	0.9	9.0
벤처캐피탈	13.4	19.7	13.1	11.5	11.5	14.6	15.1
일반법인	12.3	11.7	13.0	9.5	13.9	14.6	14.0
기타단체 (성장사다리)	7.9 (0.0)	1.6 (0.0)	1.0 (0.0)	12.8 (11.1)	10.6 (9.2)	8.1 (7.3)	5.2 (1.4)
개인	0.8	0.9	1.8	3.4	3.5	3.6	1.4
외국인	3.9	2.5	1.3	3.3	2.1	2.8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9월 신규결성조합 주요현황

- 아이디어 - 지식재산권(IP) 전문 투자 자산운용사인 아이디어브릿지파트너스가 450억 원 규모의 특허펀드를 결성하였다. 국내 특허 및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 주력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 포스코 - 포스코기술투자는 300억원 규모의 융합 콘텐츠 펀드를 조성하였다. 융합 콘텐츠 기업과 프로젝트로 약정총액의 70%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 캐피탈원 - 여성기업 펀드인 여성창조기업투자조합은 여성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업과 전체 임직원 중 여성비율이 35%이상인 중소, 벤처 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 2016년 8월까지 70개가 결성된 조합은 9월에 10개가 추가로 결성되었으며, 특허 기술사업화펀드 2개, 지방기업펀드 2개, 여성전문 펀드 1개가 포함되어 있다.

▷ 결성금액별로는 아이디어브릿지파트너스의 IBP IP Value 투자조합이 450억원으로 가장 컸고, 포스코기술투자의 '포스코 문화융합콘텐츠펀드', 가이아벤처파트너스의 '가이아문화콘텐츠투자조합'이 각각 300억원, 204억원으로 결성되었다.

[단위: 억원]

GP명	구분	조합명	결성금액	목적구분	투자분야	모태
비케이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BK 5호 동남권 투자조합	100	지방	중소/벤처일반	O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창투조합	전북-효성-에스제이 탄소성장펀드	200	지방	중소/벤처일반	O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중소벤처기업상생 투자조합	100	해당없음	중소/벤처일반	X
캐피탈원	창투조합	캐피탈원 여성창조기업투자조합	145	여성	중소/벤처일반	O
이수창업투자	창투조합	IBK-ISU 문화콘텐츠조합	100	문화	영상(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X
아이디어브릿지파트너스	KVF	IBP IP Value 투자조합	450	특허	특허	O
포스코기술투자	KVF	포스코 문화융합콘텐츠펀드	300	문화	문화 기타	O
가이아벤처파트너스	KVF	가이아문화콘텐츠투자조합	204	문화	문화 기타	O
마젤란기술투자	KVF	MTI IP 상용화펀드	150	특허	특허	O
유티씨인베스트먼트	KVF	유티씨스포츠2호펀드	170	스포츠	중소/벤처일반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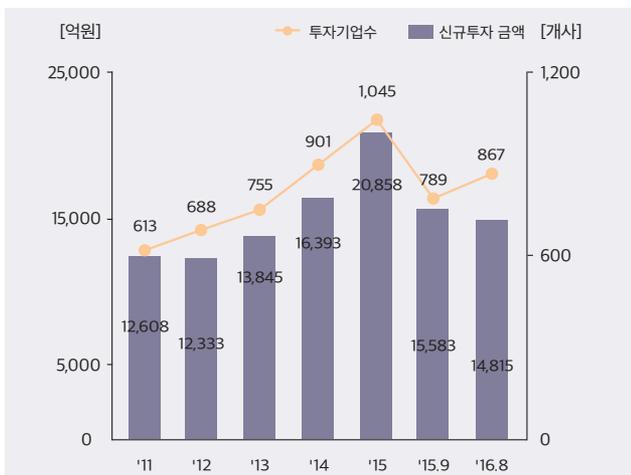
신규투자

■ 전체 신규투자 및 투자잔액

▷ 금년 9월까지 신규투자는 14,815억원으로 전년 동기(15,583억원)보다 4.9% 감소한 반면, 투자업체수는 867개사로 전년 동기(789개사) 대비 9.9%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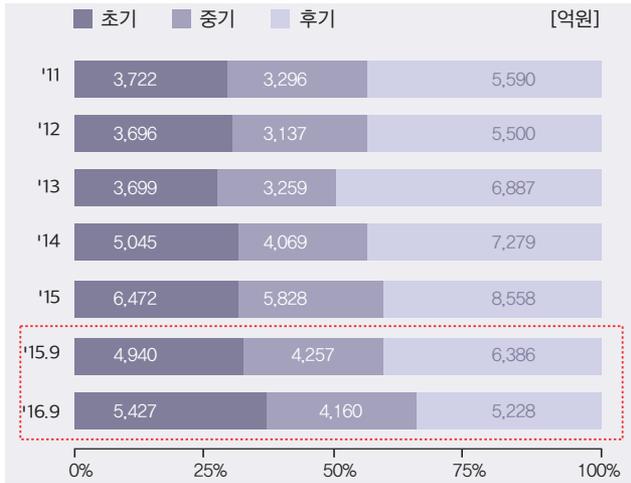
▷ 9월에는 레고캠바이오사이언스가 27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으며, 강스템바이오텍, 씨티케이코스메틱스, 알테오젠 등의 순이었다.

▷ 투자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9월까지 3,143개 업체에 6조 652억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다.



■ 업력별 신규투자

▷ 금년 9월까지 초기기업 투자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 동기(31.7%) 대비 4.9%p 증가한 36.6%를 기록하였으며, 후기기업 35.3%, 중기기업 28.1% 순으로 투자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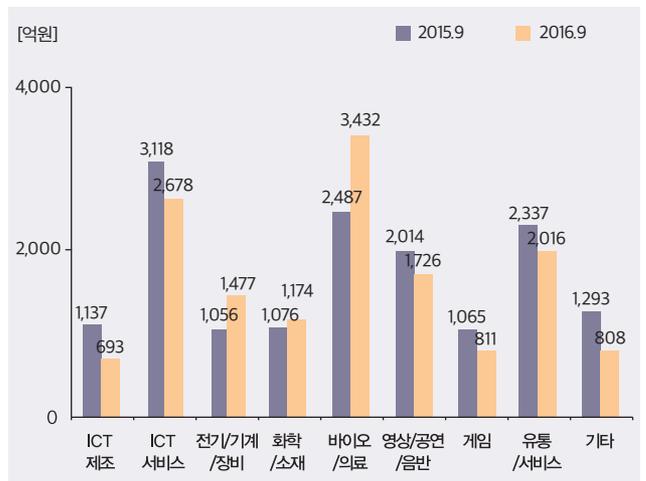
■ 업종별 신규투자

▷ 업종별로는 바이오/의료 3,432억원, ICT서비스 2,678억원, 유통/서비스 2,016억원, 영상/공연/음반 1,726억원 순으로 신규투자가 집행되었으며 바이오/의료 분야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폭(945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전기/기계/장비 분야도 421억원이 증가하였다. 반면 ICT제조분야는 444억원 감소하였다.

▷ 바이오/의료 분야는 최근 3년간 꾸준히 투자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전체 투자 규모에서 23.2%를 차지하며 지난해 투자 분야 1위였던 ICT서비스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단위: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9	2016.9
ICT제조	1,754	2,099	2,955	1,951	1,463	1,137	693
ICT서비스	892	918	1,553	1,913	4,019	3,118	2,678
전기/기계/장비	2,966	2,433	2,297	1,560	1,620	1,056	1,477
화학/소재	1,266	1,395	989	827	1,486	1,076	1,174
바이오/의료	933	1,052	1,463	2,928	3,170	2,487	3,432
영상/공연/음반	2,083	2,360	1,963	2,790	2,706	2,014	1,726
게임	1,017	1,126	940	1,762	1,683	1,065	811
유통/서비스	1,270	608	1,092	2,046	3,043	2,337	2,016
기타	427	342	593	616	1,668	1,293	808
합계	12,608	12,333	13,845	16,393	20,858	15,583	14,815



■ 유형별/지역별 신규투자

- ▶ 투자유형별로는 우선주로 투자한 금액이 7,348억원으로 전체투자의 49.6%를 차지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7.5%p 증가하였다. 반면 해외투자는 768억원 감소하였다.
- ▶ 우선주의 투자가 전년 동기(42.1%) 대비 49.6%로 확대된 반면, 보통주의 투자는 19.3%로 전년 동기(18.9%)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CB/BW 투자 비중은 13.4%로 전년 동기(16.7%) 대비 3.3%p 감소하였다.
- ▶ 지역별로는 서울(54.0%)을 비롯한 수도권(78.5%) 소재기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해외기업에도 29개사 838억원이 투자되었다.

[단위 :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9	2016.9
보통주	3,454	2,403	3,425	3,297	4,226	2,949	2,854
우선주	4,439	4,887	5,038	6,103	8,786	6,561	7,348
CB/BW	2,061	1,833	3,049	3,276	3,272	2,607	1,998
프로젝트	2,247	2,459	1,944	2,681	2,471	1,736	1,599
해외투자	407	751	389	1,036	1,951	1,606	838
조합지분투자	0	0	0	0	152	124	178
합계	12,608	12,333	13,845	16,393	20,858	15,583	14,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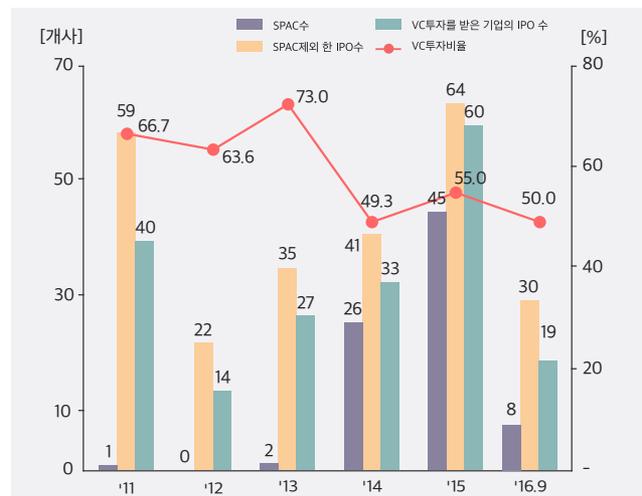
투자회수

■ 유형별 회수

- ▶ 9월까지 회수원금은 7,310억원이며, 그 중 장외매각 및 상환을 통한 회수비중이 45.1%로 가장 높았고, IPO가 31.6%, 프로젝트 18.2%였다.
- ▶ 특히, 9월에는 주식 투자의 회수비중이 높았는데, 55건의 거래를 통해 251억원을 회수하였으며 이 중 매각을 통한 회수가 243억원(96.8%)으로 가장 많았고, 상환이 8억원(3.2%)이었다.
- ▶ 9월에는 코스닥시장에 5개사(자이글, 교보비엔케이기업인수목적, 하나금융8호기업인수목적, 유니테크노, 케이비제10호기업인수목적)가 상장되었으며, 이 중 VC 투자를 받은 기업은 없었다.

[단위 :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9	2016.9
IPO	1,080	1,220	1,072	1,411	2,784	1,789	2,310
M&A	86	72	22	163	150	79	166
프로젝트	1,102	1,533	1,613	1,639	1,605	1,212	1,334
장외매각 및 상환	주식	2,608	2,655	2,363	3,080	3,724	2,682
	채권	1,044	1,165	1,025	1,311	1,614	1,156
기타	37	188	736	217	342	282	203
합계	5,957	6,833	6,831	7,821	10,219	7,200	7,310



투자 자원

▷ 최근 5년(2011~2015)간 3분기 누적 평균 10,604억원의 규모로 조합이 결성되었으나, 16년에는 80개, 21,893억원의 조합이 신규 결성되며 3/4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전년동기대비 조합수는 16개 (25.0%), 결성금액은 6,568억원 (42.9%) 이 각각 증가하였다.

[단위 : 개, 억원]

연도별 신규조합 성현황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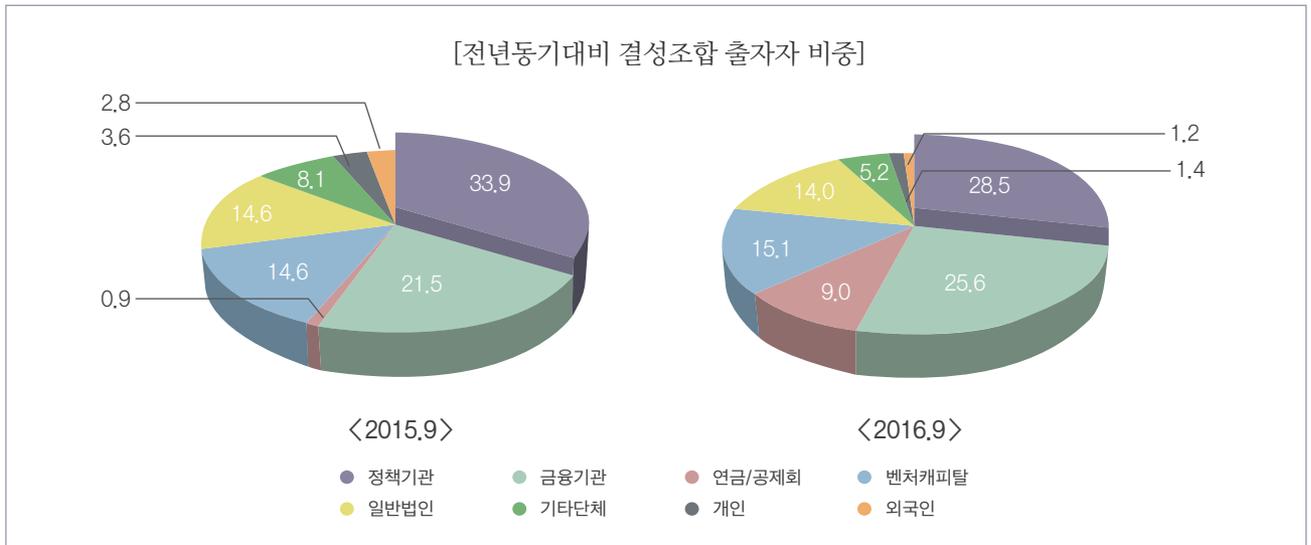
구 분	'11.9	'12.9	'13.9	'14.9	'15.9	'16.9
신규결성수	24	29	36	55	64	80
금 액	5,015	4,709	9,706	18,266	15,325	21,893
평 균	209.0	162.4	269.6	332.1	239.5	273.7

연도별 결성조합 자자 비중

출

▷ 출자자 비중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연금/공제회와 금융기관(특히 증권, 기타금융기관, 은행 등)의 출자가 두드러져 조합의 신규결성 확대에 기여하였다.

[단위 : %]



‘16년 1~3분기 결성금액기준 신규결성조합 (상위 10개)

▷ 케이비인베스트먼트가 해외진출 바이오조합을 1,500억원으로 결성하며 개별 조합 기준 가장 큰 규모로 결성하였고, 한국투자파트너스가 중소/벤처 분야로 1,000억원 규모의 조합을 결성하였다.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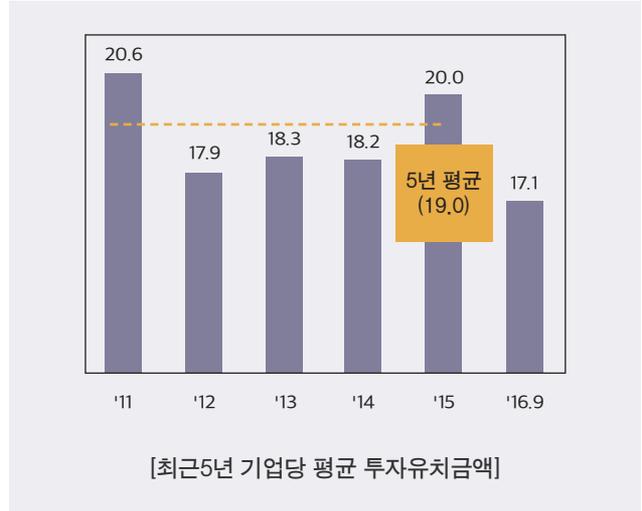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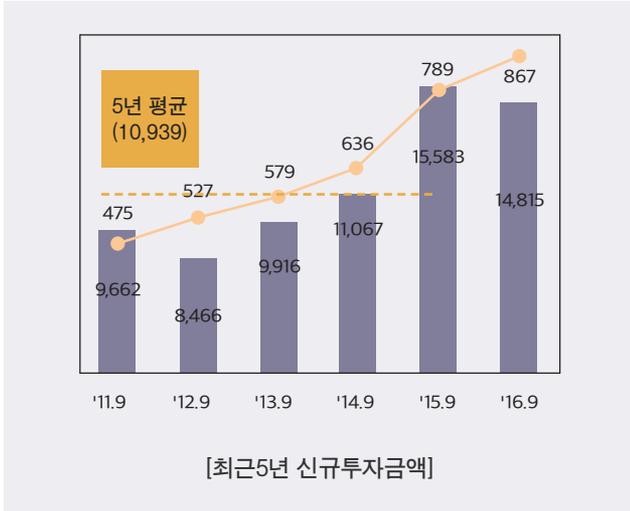
연번	조합명	GP	등록일	약정금액	투자분야
1	KB-솔리더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케이비인베스트먼트	01/25	1,500	해외진출
2	한국투자 핵심역량 레버리지 펀드	한국투자파트너스	05/20	1,000	중소/벤처
3	LB글로벌익스팬션투자조합	엘비인베스트먼트	02/22	815	해외진출
4	스마일게이트H-세컨더리1호조합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05/26	750	Secondary
5	에이티늄뉴패러다임투자조합	에이티늄인베스트먼트	05/19	750	중소/벤처
6	해외VC 외자유치펀드 2호	한국벤처투자	07/15	737	중소/벤처
7	2015 KIF-IBKC/SBI 세컨더리IT전문투자조합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02/04	700	Secondary
8	2015 KIF-스톤브릿지 IT전문투자조합	스톤브릿지캐피탈	04/06	600	창업초기
9	SV Gap-Coverage펀드 2호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07/28	578	Secondary
10	퀵컴-컴퍼니케이 모바일생태계 상생펀드	컴퍼니케이	06/01	570	IT

신규투자

- ▷ 867개사에 14,815억원이 투자되어 투자금액 기준 전년 동기(789개사, 1조 5,583억 원)대비 4.9% 감소하였다.
- ▷ 최근 5년(2011~2015)간 3분기 누적 평균 601개 기업에 10,939억원이 투자되었으며, 16년 3분기에는 이보다 266개사, 3,676억원 많은 투자실적을 기록하였다.

■ 최근 5년간 투자현황

[단위 : 억원, 개사]



■ 전년동기대비 업종별 신규투자

- ▷ 바이오/의료가 전년동기대비 큰폭으로 증가(945억원, 37.9%)하였으며 전기/기계/장비와 화학/소재도 전년동기대비 421억원, 98억원 증가하였다.

[단위 : 억원, %]

구분	ICT제조	ICT서비스	전기/기계/장비	화학/소재	바이오/의료	영상/공연/음반	게임	유통/서비스	기타	합계
'15.9	1,137	3,118	1,056	1,076	2,487	2,014	1,065	2,337	1,293	15,583
	7.3	20.0	6.8	6.9	16.0	12.9	6.8	15.0	8.3	100.0
'16.9	693	2,678	1,477	1,174	3,432	1,726	811	2,016	808	14,815
	4.7	18.1	10.0	7.9	23.2	11.6	5.5	13.6	5.4	100.0

■ 전년동기대비 업력별 신규투자

[단위 : 개사, 억원, %]

구분	'15.9				'16.9			
	초기	중기	후기	전체	초기	중기	후기	전체
업체수	391	207	209	789	400	244	248	867
비중	48.5	25.6	25.9	100.0	44.8	27.4	27.8	100.0
투자금액	4,940	4,257	6,386	15,583	5,427	4,160	5,228	14,815
비중	31.7	27.3	41.0	100.0	36.6	28.1	35.3	100.0

■ 전년동기대비 업종·업력별 신규투자

[단위 : 억원]

구분	ICT제조	ICT서비스	전기/기계/장비	화학/소재	바이오/의료	영상/공연/음반	게임	유통/서비스	기타	합계	
'15.9	초기	220	1,337	149	93	270	1,056	695	822	297	4,940
	중기	248	983	161	392	822	399	248	669	336	4,257
	후기	669	798	746	590	1,396	559	122	846	660	6,386
	전체	1,137	3,118	1,056	1,076	2,487	2,014	1,065	2,337	1,293	15,583
'16.9	초기	693	2,678	457	174	1,002	709	522	797	468	5,427
	중기	4.7	18.1	402	357	1,110	617	181	635	48	4,160
	후기	220	3,118	618	643	1,320	400	109	585	292	5,228
	전체	248	20.0	1,477	1,174	3,432	1,726	811	2,016	808	14,815

■ 전년동기대비 피투자기업당 투자유치금액 분포

- ▷ 전년동기대비 투자금액이 소폭 감소(768억원, 4.9% ↓)한 것은 대규모(100억원 이상) 투자보다 10~30억원 규모의 투자가 증가하며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의 결과로 분석되었다.
- ▷ 또한, 투자금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투자기업수가 작년동기대비 78개사(9.9% ↑) 증가한 것은 VC들의 포트폴리오의 다양화와 더불어 초기기업투자가 증가하면서 대규모 자금(100억원 이상)보다는 초기기업의 기업가치에 맞는 적정투자(30억원 이내) 증가로 인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단위 : 억원]

구분	5억원 미만	5~10억원	10~20억원	20~30억원	30~50억원	50~100억원	100억원 이상	전체	
'15.9	초기	315	517	1,024	877	987	643	577	4,940
	중기	66	280	731	447	975	912	846	4,257
	후기	62	159	661	557	1,205	1,806	1,936	6,386
	전체	443	956	2,416	1,881	3,176	3,361	3,359	15,583
'16.9	초기	290	464	1,150	919	1,131	743	730	5,427
	중기	137	236	688	900	9339	1,035	225	4,160
	후기	77	196	974	750	894	1,311	1,026	5,228
	전체	504	896	2,812	2,569	2,964	3,089	1,981	14,815

■ 16년 1~3분기 주요업종별 VC투자(상위 5개사)

- ▷ '16년 1~3분기 투자상위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ICT분야에서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가 310억원, 바이오/의료 분야에서는 케이비인베스트먼트가 23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유통/서비스 분야에서는 소프트뱅크벤처스가 209억원을 투자하며 높은 투자실적을 기록하였다.

[단위 : 억원, %]

구분	ICT		바이오/의료		유통/서비스	
	VC명	금액	VC명	금액	VC명	금액
1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310	케이비인베스트먼트	230	소프트뱅크벤처스	209
2	한국투자파트너스	213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220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166
3	소프트뱅크벤처스	142	인터베스트	211	한국투자파트너스	130
4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125	한국투자파트너스	187	케이비인베스트먼트	120
5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125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157	엘비인베스트먼트	115
계	5개사합계	915	5개사합계	1,005	5개사합계	740
	전체	3,371	전체	3,432	전체	2,016
	비중	27.1	비중	29.3	비중	36.7



투자회수

▷ 2016년 1~3분기 VC가 회수한 금액은 원금 기준 7,310억원으로 이중 45.1%가 장외매각 및 상환을 통해 회수되었으며, IPO(31.6%), 프로젝트(18.2%) 등의 순이다.

■ 회수유형별 회수비중

[단위 :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9
IPO	18.1	17.8	15.7	18.0	27.2	31.6
M&A	1.5	1.0	0.3	2.1	1.5	2.3
프로젝트	18.5	22.4	23.6	21.0	15.7	18.2
장외매각/상환	61.3	56.0	49.6	56.1	52.3	45.1
기타	0.6	2.8	10.8	2.8	3.3	2.8

* 회수원금 기준

■ 16년 1~3분기 VC별 회수 현황 (상위 10개사)

▷ 총 회수원금 7,310억원 중 상위 10개사가 3,081억원을 회수하며 전체 회수금액의 42.1%를 차지하였다.

[단위 : 억원, %]

	회사명	IPO	M&A	프로젝트	장외매각/상환	기타	합계
1	한국투자파트너스	180	35	48	226	-	489
2	인터베스트주식회사	262	-	0	159	-	421
3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247	-	-	140	21	408
4	프리미어파트너스	23	15	3	265	-	306
6	스틱인베스트먼트	141	-	-	99	56	296
7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119	-	168	-	-	287
8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24	0	-	247	-	271
9	엘비인베스트먼트	119	-	-	110	-	238
10	유니온투자파트너스	-	-	176	11	-	187
11	티에스인베스트먼트	78	-	-	100	-	178
	계	1,193	50	395	1,366	77	3,081
	전체VC회수	2,310	166	1,334	3,297	203	7,310
	비중	51.6	30.1	29.6	41.4	37.9	42.1

* 회수원금 기준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투자가 4차정시 출자사업의 운용사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중진계정 3개 조합, 출자요청액은 1,000억원이며 총 결성예정액은 2,000억원으로 조선업 구조개선을 위한 조합을 결성할 예정이다.

■ 한국벤처투자 4차정시 출자사업 선정결과

[단위: 억원]

구분	계정	출자분야	신청회사명	출자요청액	결성예정액
4차	중진	조선업 구조개선	비케이인베스트먼트	250	500
			현대기술투자/수립창업투자	500	1,000
			케이비인베스트먼트/포스코기술투자	250	500
계				1,000	2,000

한편 10월 수시 출자사업을 마감한 결과 신청조합수 5개로 출자요청액 340억원, 결성예정액은 2,45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 한국벤처투자 10월수시 출자사업 접수결과

[단위: 억원]

구분	계정	출자분야	신청회사명	출자요청액	결성예정액
10월 수시	중진	KVF 결성목적	소프트뱅크벤처스	5	450
			케이티비네트웍	10	1,000
			지애펙벤처투자	5	300
	문화	한중문화산업공동발전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200	500
	미래	가상·증강현실(VR·AR)	케이큐브벤처스	120	200
계				340	2,450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이 벤처펀드 위탁운용사 2곳을 선정했다. 아주IB투자와 에이티넵인베스트먼트가 선정되었으며 각 150억원씩 총 300억원을 출자한다. 공무원연금의 출자비율은 총 펀드결성금액의 20%이 내며, 운용사 의무출자비율은 펀드 결성금액의 3% 이상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

인수·합병(M&A)-세컨더리 분야 재출자에 총 4군데 위탁운용사가 숏리스트에 올랐다. 출자 제안서를 접수한 10군데 운용사 중 송현인베스트먼트, 이앤인베스트먼트-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CO-GP), 현대기술투자-마이다스동아인베스트먼트(CO-GP), 엠지인베스트먼트 등 4개사이다. 이들 4군데의 운용사는 현장 실사와 구술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2곳의 운용사가 선정돼 각각 170억원씩 총 340억원을 출자 받을 예정이다.

사학연금

10월 최대 5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블라인드) 위탁운용사 운용사 모집을 시작했다. 사학연금은 총 5개 운용사를 선정해 각각 100억원씩 균등 배분할 계획이다. 출자대상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KVF),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다. 다음달 9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한 후보군을 대상으로 정량평가를 통해 모집 운용사의 2배수를 1차적으로 뽑는다. 이후 3주간의 현장실사와 정성평가(PT)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오는 12월 초 5개 운용사를 확정할 계획이다.

경찰공제회

지난 9월에는 경찰공제회가 블라인드 펀드의 운용사로 에이티넵인베스트와 메디치인베스트를 선정하였다. 아주아이비투자, 케이티비네트웍, 서울투자파트너스,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등 업력이 탄탄한 업체들이 대거 지원하여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가운데, 설립 이후 경연 방식으로 출자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처음이었던 경찰공제회는 신중하게 선정을 완료하였다.

산재보험기금

벤처펀드에 3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인 산재보험기금은 24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운용사 3곳을 선정하는 벤처펀드 부문에 5배수의 지원사가 몰렸다. 각 지원사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산재보험기금은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로부터 일정 보험료를 징수해 마련한 고용부 산하 기금으로 최근 부동산·인프라를 포함한 대체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내달 진행 예정인 1, 2차 심사 결과를 동등한 비율로 합산하여 최종 결과는 11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은 4개 운용사를 선정하여 벤처펀드에 400억원(펀드 결성총액의 최대 30%)을 출자할 예정이다. 펀드는 블라인드 형태로 운영되며 바이아웃 및 인수합병(M&A), 세컨더리, 매자민, 해외투자 등을 주요 투자전략으로 삼는다. 10월 28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였으며 1차 서면평가, 현장실사, 2차 대면평가 등을 거쳐 11월 30일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본회는 지난 1990년부터 국내 유일의 벤처캐피탈 업계 소식지인 '벤처캐피탈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대처하고 다양한 정보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사 및 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층
www.kvca.or.kr